

재난안전연구소 이슈페이퍼



Contents

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성금의 모집 및 배분의 의미와 정책이슈
세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주호

재난관련 종사자를 위한 Staff-Care
한국재난심리연구소장 이윤호

2022 산불, 수해, 태풍 등 협회 대응 현황
희망브리지 재난안전연구소

재난안전연구소 활동 동향(6월-10월)
희망브리지 재난안전연구소

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성금의 모집 및 배분의 의미와 정책이슈

세한대학교 교수
이주호

I. 재난구호성금의 정책 이슈

□ 재난구호성금은 “국민 스스로 재난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는다”는 시민사회의 선의라는 점에서 접근 필요

○ 과거와 달리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각종 대규모 사회재난이 증가하면서, 재난구호를 위한 국민 성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구호성금의 배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

- 재난구호성금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모금되어 재난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성금 모금의 근거를 달리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자연재난 피해자와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모금기관과 배분기관의 차이로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의 차이로 인한 논란이 발생

○ 재난구호성금의 근본적 발로와 취지는 사회적 공익이나 자선을 위하여 내는 돈으로 의미를 파악하고 있음

- 성금 중 기부금은 사회복지기관들이 불우한 이웃을 직접 돕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자연재난에 의한 구호성금이 재해구호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되고 있는 반면, 사회재난은 배분위원회를 거치고 있으나 지급기준이 기관에 따라 일정하지 않음

<그림> 재난구호성금 배분액에 대한 최근 기사 논란

한국일보 **포토**

산불 피해자에 전달되는 기부금 천양지차... 최대 30배 차이 왜

입력 2022.10.02. 오후 5:01

2018년 산불 땀 240만원... 2019년은 7500만원
모금액 따라 차이 커... 동일 피해에 차별적 지원

매일신문

태풍 성금, 경북도는 배분 권한 없다?... "재해 때마다 논란 현실 반영을"

입력 2022.10.03. 오후 4:05 수정 2022.10.03. 오후 9:05

"의연금 배분 걸림돌 '재해구호법' 개정" 목소리 높아
배분위원회 의연금 배분권 독점...기부자 선택권 '왜곡'
의연금품 관리 규정도 '지급 상한액 등 기준 없애야' 목소리

- 재난구호성금의 모금과 배분 과정에서 불거지는 형평성, 공정성, 충분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진단 필요
 -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난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충격과 피해 영향은 자연재난이냐? 사회재난이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님에도 모금과 배분 방식의 차이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야기하고 있어 근본적 고민 필요
 -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는 때로는 임차인의 지위에서 주거를 상실한 당사자이며, 때로는 재산피해를 입은 임대인 등으로 피해의 배경과 상황은 천차만별로 피해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불러옴
 - 자연재난은 재난피해자에 대해 일원화된 모금창구로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전체 재난구호성금을 관리하고, 일정한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배분하는 반면, 사회재난은 모금기관들이 제각기 기준에 따라 배분하면서 재난 피해자의 지원에 대한 중복과 과다·과소 배분 등 재난 유형별 배분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이와 동시에 재난피해자의 입장에서 지원액에 대한 지원의 충분성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

〈표〉 2022 호우·태풍(자연재난)과 2022 동해안 산불 등(사회재난)의 최대 지원금액 사례 비교

구분	(A)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정부 재난지원금 + 국민성금)	(B) 2022 강원산불 등 사회재난 (정부 재난지원금 + 국민성금)	산불재난(B)-풍수해재난(A)
인명피해	3,000만원 이내	20,000만원(2019 강원산불)	17,000만원 더 받음
주택전파	2,100만원 이내	15,000만원(2022 동해안산불)	12,900만원 더 받음
주택반파	1,050만원 이내	5,900만원(2022 동해안산불)	4,850만원 더 받음
주택소파	300만원 이내	1,300만원(2022 동해안산불)	1,000만원 더 받음

II. 재난구호성금의 법적 근거와 한계

- 정부는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라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정(2014.09.25.)을 설치하면서 재난구호성금 중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성금(의연금)에 대한 지급대상과 지급상한액을 제한하면서 사회재난과 배분 기준의 차이가 발생

〈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성금의 성격

구분	의연금(자연재난)	기부금(사회재난)
근거	재해구호법 제17조~제28조 의연금품 관리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목적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국제적인 구제사업, 재난(자연재난은 제외)의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사업 등

구 분		의연금(자연재난)	기부금(사회재난)
모집 · 배분 · 기준 · 절차	모집 신청	행정안전부 허가	행정안전부(10억 초과) 또는 시·도(10억 이하) 등록
	모집 비용	2% 이내 모집비용 총당	15% 이내 모집, 관리, 운영, 결과보고 등 관련 비용 총당
	집금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금액은 배분위 계좌로 입금	모집자별 자체 모금액계좌로 입금
	배분 주체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	모집자 별로 구성된 배분 관련 위원회 등 자체 협의체
	배분 기준	의연금품 관리 운영 규정 상의 상한액	통일된 기준은 없고, 모집자별 자체 기준
	배분 절차	지자체, 재난지원금 피해조사와 연계, 대상자 확정, 의연금 요청 → 배분위원회 심의 의결 거쳐 개별 지급	모집자별 대상자 선정 → 배분 관련 자체 협의체 심의 의결 거쳐 개별 지급

○ 지급대상과 지급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재난구호성금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재난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이나, 재난의 규모와 이로 인한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데 따른 충분성의 문제 발생

- 재난 피해 상황에 따라 배분위원회를 통한 일부 조정이 있으나 지급상한액의 제한으로 지원 규모 결정은 한계가 있음

〈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2017.07.16.)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

피해	구분		지급상한액
인명피해	사망·실종자 유족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부상자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주택침수·파손	전파		세대당 500만원
	반파		세대당 250만원
	침수		세대당 100만원
주생계수단피해			세대당 100만원

○ 다만, 재난구호성금 중 의연금에 대한 지급상한액의 법적 제한은 충분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국재해 구호협회가 지원해 온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구호활동을 고려할 때, 모금액 규모가 적거나 모금활동이 없는 재난 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높은 제도로 판단

-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특별한 모금활동이 없이도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포함해 필요한 구호물품을 전달하였으며, 모금활동이 적더라도 지급상한액에 부합하는 재난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옴

〈표〉 코로나19 시도 물품지원 현황

품목	지원률	합 계	본회	경북(대구)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
마스크	63%	23,453,161	3,125	7,510,850	6,708,935	664,041	1,009,965	725,066	632,200
손세정제	0%	28,528	211	22,924	2	-	2,886	150	-
손소독제	7%	2,488,151	-	641,725	385,581	141,151	402,035	58,750	24,911
보호복	0%	28,003	-	16,494	7,909	-	100	-	-
생필품키트	3%	954,761	166	140,012	85,649	66,552	188,676	37,280	-
식품키트	8%	3,086,441	1,273	970,708	70,870	240,663	518,565	113,155	59,682
의료진키트	1%	262,704	20	158,390	35,095	14,472	13,904	4,340	-
생수	2%	872,220	24	374,568	149,708	23,400	55,812	4,440	-
식품	4%	1,427,663	-	714,431	412,032	18,685	201,367	9,195	-
응급구호세트	0%	12,247	-	-	3,222	-	-	-	-
취사구호세트	0%	200	-	-	-	-	-	-	-
기타	12%	4,356,751	138	1,294,955	641,301	156,378	1,216,350	153,990	14,473
합 계	1	36,970,830	4,957	11,845,057	8,500,304	1,325,342	3,609,660	1,106,366	731,266
시도 별 지원률		100%	0%	32%	23%	4%	10%	3%	2%

- 한편, 사회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금품모집법에 따른 재난구호성금 모금이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지역사회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이 모금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이 배분위원회를 통해 이를 배분하면서 동일 유형의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지급규모 차이 등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논란이 됨
 -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와 지원기관에 따라 특정 가구를 지원 하면서 지원중복과 차이는 더 크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

(1) 사회재난(2022 동해안 산불) 지원금액 (금액 : 천원)

실거주 여부	피해 정도별	주택 규모	정부 지원금	국민성금(기부금협의회 1회차~9회차 회의)					합계 (정부지원금+성금)
				희망브리지 등 모금 3기관 협의			3차	성금합계	
				1차	2차	계			
실거주	전파	25평이상	38,000	52,000	23,000	75,000	37,000	112,000	150,000
		20~25평	38,000	52,000	15,400	67,400	19,600	87,000	125,000
		15~20평	38,000	52,000	7,700	59,700	2,300	62,000	100,000
		15평미만	38,000	52,000	-	52,000	-	52,000	90,000
	반파	-	19,000	31,000	9,000	40,000	-	40,000	59,000
	부분소	-	1,500	11,500	-	11,500	-	11,500	13,000
	세입자	-	9,000	25,000	17,250	42,250	-	42,250	51,250
미거주	전파	-	38,000	52,000	-	52,000	-	52,000	90,000
	반파	-	19,000	31,000	-	31,000	-	31,000	50,000
	부분소	-	1,500	11,500	-	11,500	-	11,500	13,000

* 기부금협의회 1~8회차까지 2019 강원산불 상한선을 전례로 지원금 규모 및 대상을 협의하였고, 9회차에서 지자체의 피해 규모

(2) 사회재난(2019 강원 산불) 지원금액 (금액 : 천원)

구분	피해정도	공시지가	실/미거주	희망브리지	공동모금회	총 지원기준	비고
인명 피해	사망			100,000	100,000	200,000	정부지원금 미포함
	부상			20,000	20,000	40,000	
소유자	전파	3천만원 이상	실거주	65,000	10,000	75,000	
			미거주	50,000	10,000	60,000	
		3천만원 미만	실거주	55,000	10,000	65,000	
			미거주	40,000	10,000	50,000	
	반파	3천만원 이상	실거주	35,000	5,000	40,000	
			미거주	25,000	5,000	30,000	
		3천만원 미만	실거주	30,000	5,000	35,000	
			미거주	20,000	5,000	25,000	
부분소	-	-	3,000	2,000	5,000		
세입자	전파	-	-	12,000	3,000	15,000	
	반파	-	-	7,000	3,000	10,000	

III. 재난구호성금의 향후 과제

- 재난구호성금을 재난피해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구호서비스나 물품으로 전환하여 전달하는 해외와 달리 현금 지급방식을 혼합하는 우리나라의 지원제도 자체는 재난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재난피해자에게 구호서비스나 물품 형태로 전달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재난의 책무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차원에서 개선해 왔으나, 당장 생계와 주거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재난피해자에게 있어 현금 지원은 다양한 형태의 수요를 직접 대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민간 영역의 자율적 재난구호성금 모금과 배분 활동을 법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의 요소와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재난구호성금에 대한 시민사회의 근본적 취지를 고려할 때,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전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의연금과 기부금 제도에 대한 법적 취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는 사회단체의 증가로 기부금품 모집법의 제도적 취지나 광역화된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난의 특성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의연금품의 관리운영 규정은 상호 존중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재난구호성금의 모집 경로보다 배분 경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재난 유형별 배분 기준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는 재난 유형의 세분화를 통해 그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부
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의증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해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
- 일반 국민의 위험인식과 공감 차이에 따라 재난구호성금은 재난 유형별 세부 재난원인에 따라 모금활동과 모금액
수준에도 차이를 보임
- 반면, 자연재난을 비롯해 사회재난 중 코로나19, 산불, 감염병, 가축감염병, 환경오염사고, 미세먼지 등은 재난
유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특성에서 보면 지리적, 사회적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지만 배분
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
 - 공간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와 재난피해자의 범위가 명확한 사회재난의 경우 모금에 참여
하는 일반 국민의 기부 의도가 명확한 만큼, 당해 재난피해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반면 광범위한 재난 피해와 이로 인해 재난피해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기부
의도를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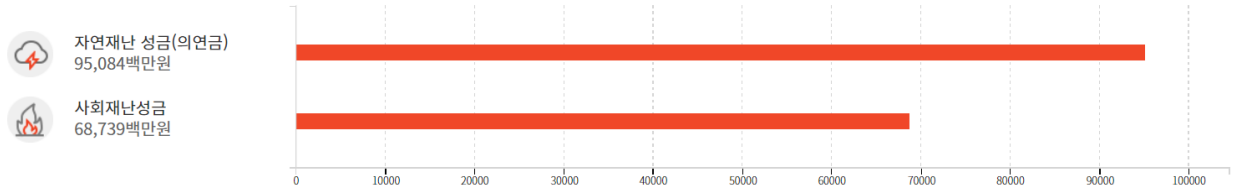
〈표〉 현행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재난구호성금 배분의 문제

구분	대 상	문제점
사회재난 (기부금)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감염병, 가축감염병, 미세먼지(2019~)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이슈별 배분으로 지원의 불평등 발생
자연재난 (의연금)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대설, 지진, 황사, 가뭄, 한파/폭염(2018~)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동일피해, 동일지원의 형평성 중시로 지원의 충분성(만족도) 문제 발생

- 특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그 피해 정도의 차이와 별개로 국민적 관심과 선의로 모금액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사회재난이라 하더라도 모금액을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재난피해자가 지원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또 다시 발생
시킬 우려가 있는 점 또한 함께 고려 필요
- 가령, 특정 사회재난에 모금액이 집중하여 재난피해 규모를 넘어서는 모금액이 모일 때 이를 모두 재난피해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의도만을 고집하는 경우, 오히려 재난피해자에게 특정한 부를 제공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
 - 동시에 지원금액의 배분 과정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 전달되는 경우, 재난피해자 그룹 간의 갈등과 반발
로 인해 재난구호성금의 취지 자체가 빛이 바랄 수 있음

〈표〉 최근 8년간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유형별 재난구호성금 모금액 규모

2014~2021년에 모집한 성금은 총 163,823백만원입니다.



□ 결론적으로 재난구호성금의 배분 과정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정하되, 배분위원회를 통해 재난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자율성을 통제할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배분위원회 구성) 재난 발생 시 배분위원회를 구성하되, 배분위원회의 참여자는 시민사회 영역의 단체들로 제한하며, 제3자적 시각에서 객관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피해지역의 관계 단체들을 배제하는 것을 고려하여 설계 필요

- (의견수렴과정의 절차화) 피해지역 단체들의 배제가 재난피해자의 호소까지 차단하지 않도록 의견수렴과정은 절차화하여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설계 필요

- (지급기간의 합리화) 재난피해자에 대한 단기적 지원은 사전에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상한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의견수렴과 지역의 피해복구 상황을 종합하여 배분위원회가 추가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

※ 현재도 추가 지원에 대한 결정을 배분위원회가 하고 있으나 정례화된 절차가 아닌 임시적·필요적 결정으로 한계가 있음

- (지급결과에 대한 공론화) 재난 지원 결과에 대하여는 배분위원회와 재난피해자, 모집 이후 배제된 사회단체들을 포함하여 그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절차적 합리화를 위한 환경 조성 필요

□ 재난피해자의 슬픈 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돕고자 하는 국민들의 선의인 재난구호성금이 지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현실에서 배분과정의 합리화를 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은 필연적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 자체는 안타까우나 공론화를 통한 제도화 또한 불가피한 현실인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임

이주호

- 소속/직위: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교수
- 최종학위: 충북대학교 행정학 박사
- 주요경력
 - 現 중앙재난관리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現 국가위기관리학회 운영부회장
 - 現 사단법인 이재민사랑본부 상임이사

재난관련 종사자를 위한 Staff-Care

한국재난심리연구소장

이윤호

I. 배경

1. 정의

- Staff-care는 특별히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은 현장에서 일하는 인도주의 종사자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돌봄 또는 기관의 대응을 뜻함 (Interaction, 2008)
- 스텝케어의 목적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인지, 정서, 신체, 영적인 건강증진을 통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업무의 질을 향상하게 하는 것 (InterHealth & PeopleInAid, 2009)

2. 필요성

- 재난관련 종사자¹⁾들은 복합적인 응급상황(전쟁, 난민캠프 등),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사회재난(건물붕괴, 화재, 화학물질 유출 등),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 등) 등 다양한 현장에 일차적으로 출동하여 작업을 함
- 특히, 급성의 단계에 투입되는 종사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다른 피해자를 도와야 하는 특성을 갖게 되는 집단
- 이와같은 경험은 다른 직업 분야의 종사자들과 달리 특별한 스트레스를 갖게 되는 요인이 되고 정신건강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세계 무역 센터 테러 사건에 구조, 복구, 청소에 참여한 대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PTSD 11.1% 외에도 우울 증 8.8%, 공황장애 5.0%의 유병률을 보였고, 거의 절반이(45%) 실질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Stellman et al, 2008)

1) 재난관련 종사자는 수색 및 구조대원(rescue workers), 수송 및 복구 인력, 소방관, 경찰관, 의료인 및 구급대원, 정신 건강 및 사회 서비스 요원, 인도주의 활동가,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

- 또한, 음주자의 24%가 테러 이후 음주량 증가, 47%가 구조 및 복구 작업 기간에 음주량 증가가 보고됨
- 인도주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30~50% 정도가 일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Eriksson, 2002)
- 현장에서 복귀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0%가 높은 수준의 정서적 소진, 30%가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우울, 45%는 상당한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임 (Eriksson et al, 2003)
-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문제를 가지기도 함
 - 세계 무역 센터 테러 사건에 청소 작업에 동원되었던 대원들은 신체적 건강 문제(기침 73%, 천명 84%, 천식 19.8%)를 호소 (Gross et al, 2006)
- 이와같은 스트레스를 비롯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는 직업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재난종사자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스트레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인, 팀, 기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현장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거나 경험하고, 때로는 과중한 업무량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림
 - 2022년 동해안 산불 당시 지원 기관의 현장 활동가들은 마땅한 휴게장소가 없어서 바닥에서 식사를 하거나, 차량 안에서 긴급한 업무를 처리함
 - 2022년 서울 강남지역 폭우 및 침수사고 해당지역 주민센터 직원들은 민원처리로 인해 한달 이상 휴일없이 근무²⁾
 - 동일하게 해당지역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역시 밀려드는 자원봉사 인력을 배치, 관리하는데 전직원이 투입, 한달 가량 상당한 업무를 소화
- ※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릿 호 침몰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 당시 현장을 찾은 자원봉사자는 약 2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7명임

2) 당시 코로나 재유행으로 직원 일부가 자가격리되어 정원보다 적은 인원이 근무

II. 국제기관의 현황

1.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 IASC로 불리는 인도적 지원기관간 상임위원회가 발간한 재난시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관한 가이드 (IASC, 2007)에서 Staff-care에 대한 부분을 언급
- 열 한가지의 활동지침 중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에서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함
- 주요한 조치사항은 다음 내용을 포함

- 특정 비상사태 및 재난 상황에서 직원의 웰빙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직원들을 본인의 직무뿐 아니라 배상사태 및 재난 상황에 준비시킨다.
- 건강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 잠재적인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한다.
- 직원들의 의료서비스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 극단적인 사고(중대한 사건, 잠재적으로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 임무/고용 이후에 지원을 제공한다.

2.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 (NVOAD)

- 재난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구호 기관들의 연합인 국가 재난구호활동협의회(NVOAD)는 재난 경감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NVOAD, 2020)
- 봉사자 관리, 정서적 지원, 자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위한 합의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스텝케어의 중요성과 단계별 활동지침이나 관리방안을 제시함
- 여러 지침 중에서 스텝케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 목	National VOAD Points of Consensus		National VOAD Emotional and Spiritual Care Committee Disaster Emotional Care Guidelines
	Volunteer Management	Disaster Spiritual Care	

주요 내용	<p>#9 돌봄을 받고, 돌봄 자원을 이용할 권리</p> <p>1) 권리 : 자원봉사자들은 음식, 물, 주택, 의료, 정신적, 정서적 돌봄 등을 제공하는 조직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p> <p>2) 책임 : 자원봉사자들은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책임이 있다. 이는 휴식 기간 요청, 필요하다면 재배치 요청, 섭식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할 때 심리·사회적, 의료적 관리를 요청하는 것이 포함된다.</p>	<p>#6 돌봄제공자를 위한 재난 정서적, 정신적 돌봄</p> <p>- 재난에서 영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은 압도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부담은 연민의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기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적 돌봄 제공자에게 필수적이다.</p> <p>- 재해 대응 기관은 재해 발생 시 직원을 돌볼 수 있도록 건강한 업무 및 생활 습관을 모델링할 책임이 있다. 정서적, 정신적 돌봄 제공자를 위한 사후 관리 프로세스는 필수이다.</p>	<p>- 재난종사자도 정서적케어의 대상에 포함된다</p> <p>- 조직은 돌봄제공자를 위해서 배치 중 또는 배치 후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p> <p>- 돌봄제공자는 자신을 돌보고 동료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p>
----------	--	--	--

3. Antares Foundation

- 안타레스 재단은 인도적 지원과 해외 개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자문, 훈련,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 (Antares Foundation, 2012)
- 특히, 인도적지원 활동가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조직이 프레임워크를 실천하도록 지원함
- 배치 전-중-후의 단계에 따라 총 8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원칙이 잘 기능하는지 측정하는 34개의 지표를 가지고 있음.
- UNHCR은 2013년 안타레스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직원들을 위한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관한 실태를 연구한 바 있음
-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임무 배치	원칙	주요내용
전	원칙1. 정책	기관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기술한다.
	원칙2. 스크리닝과 평가	기관은 예측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대응에 대한 직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스크리닝/평가한다.
	원칙3. 준비와 훈련	기관은 모든 직원들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적절한 준비와 훈련을 받도록 보장한다.
중	원칙4. 모니터링	기관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직원들에 대한 모니터를 보장한다.
	원칙5. 지속적인 지원	기관은 직원들이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잘 다루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지원을 제공한다.
	원칙6. 위기지원	기관은 위기사건과 일상적이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에 대해서 문화적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임무 배치	원칙	주요내용
후	원칙7. 임무 종료 지원	기관은 계약종료시 실제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개인적 스트레스와 운영상의 리뷰 모두 포함)
	원칙8. 사후 지원	기관은 계약 중에 발생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노출로 영향을 받은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한다는 정책을 명확하게 갖춘다.

4. International Critical Incident Stress Foundation (ICISF)

- Mitchell은 1980년대 외상사건을 경험한 소방관을 위한 소규모 집단 위기개입 프로그램인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CISD)을 개발 (Everly, G. S. & Mitchell, J.T., 1999)
- 이후, 집단 위기개입을 위한 Rest Information Transition Services(RITS), Crisis Management Briefing(CMB), Defusing과 개인 위기개입을 위한 SAFER-R모형을 추가하여 통합적인 위기개입 툴인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CISM)을 발표
- 안타레스 재단의 프레임워크와 유사하게 위기사건 전,중,후 단계에 따른 개입을 소개하고 있음
- CISM은 작업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관리보다는 갑작스러운 위기사건으로 인한 급성의 외상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위기개입에 적합한 형태를 가짐
- 2007년부터는 UN은 전 세계에 있는 UN직원을 위한 위기개입 툴로 CISM을 도입하여 사용 중
- 현재는 재난 종사자, 초기대응자 뿐만 아니라 재난, 화재, 사고 등 다양한 위기사건을 경험한 일반인을 위한 통합적 위기개입 툴로 사용됨

개입	개입대상	개입시기	개입시간
Rest Information Transition Services	Staff Only	임무 교대시	30분
Crisis Management Briefing	대규모 집단 or 소규모 집단	위기사건의 전, 중 후	20~30분
Defusing	동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집단	당일~8시간 이내	20~45분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동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집단	1~3일 이내	1~3시간

III. 국내 사례

1. 국가트라우마센터

- 재난 피해자 및 재난 대응업무 종사자를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인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2019년 트라우마 회복 패키지를 제공
- 2020년부터는 재난 종사자를 위한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실시 중
 - 마음교육, 마음충전, 마음산책 등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21개의 프로그램이 진행
 - 트라우마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 프로그램과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유료 프로그램으로 구분
 - II-4에 소개한 위기사건 스트레스 디브리핑(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을 외부기관 연계로 제공중
- 재난대응인력 소진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2022년 8월부터는 코로나19 대응인력을 위한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실시

2.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 2018년부터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와 함께 스텝케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
- 안타레스 재단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배치 전-중-후 단계별 스텝케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행
 - 선발과정에서 심리검사를 활용한 심리적 특성 확인, 배치 전 스트레스 관리 교육, 배치 중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복귀 후 적응지원 프로그램 실시
 - 지속적으로 각 과정을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현재 배치 중 심리지원 서비스를 분기별로 실시

3.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 미얀마, 동티모르 등에서 교육 지원사업과 식수 위생사업 등을 진행중인 국제개발 구호단체
-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를 통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현장활동가들에 대한 심리적 응급처치를 지원
- 2022년 5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지원활동과 동해안 산불 이재민 지원에 참여한 스텝들을 대상으로 사후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 II-4에서 소개한 CISM 과정에 포함된 Post Action Staff Support(PASS)를 실시
- 산불 이재민 지원에 참여한 직원은 오프라인, 독일에 있는 스텝은 온라인으로 실시
- 국내에 있는 국제개발 구호단체 중에서 긴급 지원 작업 후에 스텝케어를 실시한 최초의 사례

IV. 결론

- 재난관련 종사자들의 건강한 기능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의 업무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관련 기관(인도 주의 및 개발 조직)들은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내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
-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 직원들은 업무수행에서 낮은 효율성과 낮은 효과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스텝케어를 적용하는 여러 국제기관의 사례를 보았을 때 스텝케어는 단순한 직원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기관이 미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틀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직원의 선발 및 배치 전부터 현장에서의 작업 과정중의 지원, 복귀 후 지원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가짐
-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스텝케어를 적용하는 곳을 확인하기 어려움
-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재난 관련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외부자원의 성격이 강함
- 더프라미스의 사례는 현장 파견 후 일회성 사후개입 프로그램으로 그침
- 기관에서는 스텝케어와 관련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
- 실제로 적용하기 : 스텝케어를 기관의 정책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시하고 적용
- 최소한의 지침 준수 : 정책으로 마련한 스텝케어의 지침을 최소한으로 준수하기
- 구체적인 직원돌봄 정책 : 돌봄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 배치 후 심리적인 검토 : 직원이 임무에 배치되면 수행에 따른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
- 스텝케어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예산
-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 스텝케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
- 조직의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스텝케어가 기관운영과 미션 수행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

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스텝케어의 서비스로 인해 낙인이 발생하거나 특정 개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

〈참고문헌〉

Antares Foundation (2012). *Managing stress in humanitarian workers Guidelines for good practice*. Amsterdam:

Eriksson, C. B., Bjorck, J., & Abernethy, A. (2003). Occupational stress, trauma, and adjustment in expatriate humanitarian aid workers. *Stress and trauma handbook: Strategies for flourishing in demanding environments*, 68-100.

Eriksson, C. B. (2001). Stress in Humanitarian Aid Workers. *Managing Stress in Humanitarian Aid Workers*, 8-8.

Everly, G.S., Jr. & Mitchell, J.T. (1999).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CISM): A new era and standard of care in crisis intervention*. Ellicott City, MD: Chevron.

Gross, R. A. Z., Neria, Y., Tao, X., Massa, J., Ashwell, L., Davis, K., & Geyh, A. (2006).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other psychological sequelae among World Trade Center clean up and recovery worker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71(1), 495-499.

InterAction (2008) *The importance of staff care*. In, *Monday Developments*. Interaction, Washington DC. Vol. 26, No. 9.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2007). *IASC Guidelines on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 Geneva: IASC.

Interhealth & PeolpeinAid. (2009) *Approaches to Staff Care in International NGOs*. Interhealth, People in Aid, London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 (NVOAD) (2020). *Quick Reference Guide: Disaster Emotional Care Guidelines*

Stellman, J. M., Smith, R. P., Katz, C. L., Sharma, V., Charney, D. S., Herbert, R., ... & Southwick, S. (2008). Enduring mental health morbidity and social function impairment in world trade center rescue,

recovery, and cleanup workers: the psychological dimension of an environmental health disaster.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16(9), 1248-1253.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13). *UNHCR's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for Staff*. Geneva: UNHCR.

이 윤 호

- 소속/직위: 한국재난심리연구소 소장
- 최종학위: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위기관리전공) 박사수료
- 주요경력
 - 現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AEGIS) 재난심리전문가
 - 現 경기도소방심리지원단 자문위원
 - 現 Intenational Critical Incident Stress Foundation Approved Instructor

2022 산불, 수해, 태풍 등 협회 대응 현황

희망브리지 재난안전연구소

- 최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1년에 3회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 산불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에서의 선포가 증가하고 있음. 산불의 경우 겨울철 가뭄과 건조한 상태의 지속, 강한 바람 등이 더해져 그 피해가 커졌으며, 앞으로 기후변화 등의 영향이 더해지며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22 동해안 산불 구호와 모금 지원의 특징으로는 민간 지원이 공적 지원의 약 80배에 달했으며, 국민성금 모금 역시 주요3단체(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만 따졌을 때 827억가량 모금되어 산불로서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주택피해 뿐 아니라 송이, 농기계, 농축산물, 시설물, 소상공인까지 넓게 지원할 수 있었음
- 2022년 8월 수해 긴급 구호 지원의 특징으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 도심에 있는 저지대 주택에 대한 침수피해가 컸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체계 개선 범정부 TFT가 구성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9월에 발생한 태풍 힌남노의 피해와 8월 수해의 피해를 합치면 주택 전파와 반파가 177건, 침수는 3만 2천 건이 넘음

1.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3월)

1)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현황(4/6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기준)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개요>

울진·삼척 산불	강릉·동해 산불
3. 4(금) 11:17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발화 • 산불면적 : 16,302ha(잠정) • 발화원인 : 조사중(실화 추정) • 주불진화 : 3. 13(일) 09:00	3. 5(토) 01:08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화 • 산불면적 : 4,221ha(잠정) • 발화원인 : 방화(토치) • 주불진화 : 3. 8(화) 19:00

<표.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개요(출처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울진·삼척 산불은 3/4(금) 11:17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발화하여 3/13(일) 09:00 진화 완료되었음. 강릉·동해 산불은 3/5(토) 01:08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화하여 3/8(화) 19:00 진화 완료되었음

- 산불면적은 울진·삼척 산불 16,302ha, 강릉·동해 산불 4,221ha로 20,523ha의 피해를 입었음(4/6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기준)
- 2019년 강원 산불과 피해를 비교하면 산불 면적은 19년 대비 7배 컸으나, 인적·물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2) 구호분야 민관협력(희망브리지 활동)

- 2022년 동해안 산불과 관련하여 민간에서 지원된 물품은 52만 점이고 그 중 275,554점(재해구호물자 450세트/6,525점, 구호물품 269,092점 등)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했음
-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 모금 주요 3단체에서 4월 30일 기준 모금한 국민성금은 827억 원이며, 주택, 송이, 농기계, 농/임/축산물, 시설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54.9억 원의 성금을 지급하였음
- 또한 재해구호단체와 자원봉사자를 통한 임시주거시설, 구호물자 지원, 배분, 세탁, 급식 지원 등이 이루어짐

2. 8월 서울 수해

1) 8월 집중호우 피해 현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 기준)

- 8월 8일~17일까지의 집중호우는 46명(사망 16, 실종 3, 부상 28)의 인명피해와 27,354건(전파 32, 반파 60, 침수 27,262)의 주택피해를 발생시켰으며, 피해액은 3,155억 원이고 복구비는 7,905억 원임
- 주요 피해 지역은 서울 및 경기지역 등 도심의 저지대로 강남 구룡마을, 송파 화훼마을 등이 이에 해당함

2) 구호분야 민관협력(희망브리지 활동)



〈사진. 화훼마을 세탁구호봉사〉

- 구호물품 총 245,300점(응급구호세트 3,522세트/48,450점, 구호물품 196,850점(기업후원) 등) 긴급지원

- 강남 구룡마을과 송파 화훼마을에서 세탁구호차량 지원 및 세탁구호 활동 진행했으며, 임시대피소 칸막이 및 간식 등을 지원함

3. 9월 태풍 힌남노

1) 9월 태풍 힌남노 피해 현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 기준)

- 9월 태풍 힌남노는 40명(사망 11, 부상 29)의 인명피해와 5,190건(전파 21, 반파 64, 침수 5,105)의 주택피해를 발생시켰음
- 힌남노의 피해 복구비는 7,802억으로 확정되었음
- 주요 피해지역은 경북권과 부산시였으며, 포항시의 피해가 가장 컸음

2) 구호분야 민간협력(희망브리지 활동)



〈사진. 포항시 대송면 재해구호물품 전달〉



〈사진. 이재민 식사지원 및 세탁구호 봉사〉

- 구호물품 총 261,418점(응급구호세트 4,037세트/54,210점, 구호물품 207,208점(기업후원) 등) 긴급지원
- 전국재해구호협회 9월 23일 자료 기준에 따르면 수해의연금은 462억 원이 모였음(전국재해구호협회 366억,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96억)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 가장 태풍 피해가 컸던 포항시에서 세탁구호활동, 이재민 식사 및 간식, 의약품 등을 지원함

4. 재난 레질리언스형 구호지원을 위한 과제

- 국민성금을 통한 재난 지원은 지금까지 긴급 구호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제는 직접 피해 세대의 지원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 공동체 사업 등으로의 발전 및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지역사회와 간접 피해 주민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지원을 통해 일상적인 재난 대비 및 지역 역량의 향상이 필요함
- 개인과 지역사회의 회복,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지역 재난 구호로 발전해 나갈 필요성이 요구됨

재난 현장에서의 목소리(9월 태풍 힌남노 현장 중심)

[첫 번째 목소리]

1년 전 태풍 피해를 겨우 복구해서 살고 있는데... 하늘도 무심하지...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대송면에 사시는 80대의 000 할머니는 해병대원들이 침수된 집을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서 부엌 아궁이 옆에 쪼그려 앉아 진흙 묻은 접시를 닦아내시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십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집이 침수되었을 때 할머니는 목까지 차오르는 물을 피해서 핸드폰을 입에 물고 필사적으로 대피하셨다고 합니다.

1년 전에 태풍 때도 피해를 입어서 겨우 복구해서 살고 있었는데 1년 만에 또 이렇게 집이 피해를 입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아들과 딸은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희망브리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이런 상황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000 할머니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연결시켜 드리려 합니다.



[두 번째 목소리]

희망브리지 한방의료가 또 오는감? 의사 선생님이 참 잘하던데...

대송면 임시대피소에서 만난 70대 000 할머니는 이번 태풍피해로 “바라는 것도, 미련도 희망도 아무 것도 없다.” 라시며, 집에 돌아가더라도 비싼 물건들로 채울 필요 없이 그냥 싼 물건들로 구입해서 채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희망브리지 한방의료에서 오신 한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참 잘 하시던데 다음에 언제 또 방문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다른 활동에 비해 많은 수고가 들어가지만 피해를 당하신 주민분 한명 한명을 보살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큰 힘이 납니다.



[세 번째 목소리]

우리는 지원받을 수 있는 지도 몰랐다. 미리 알았으면 연락해서 지원을 받았을 텐데...

포항시 구룡포읍에 000 복지팀장은 협회 현장구호팀과의 만남에서, 협회가 구호물품뿐만 아니라 식수, 간식, 구호키트, 세탁구호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알았으면 연락해서 지원 받았을거다.” 또 현장에서 부족한 물품을 협회에서 지원해주겠다는 말에는 “구룡포읍 피해지역이 30개 마을 넘는다. 우리 읍사무소 인원으로 배분이 힘들다. 지금 하루하루 1톤 차량으로 마을별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힘들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1~2년 주기로 보직이 변경되어 바뀝니다. 재난을 경험한 공무원들은 협회를 알고 요청하지만, 업무가 처음인 공무원들은 협회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협회를 홍보하고 구호요청하는 법을 알리고 성금 모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교육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연구소 활동 동향(6월~10월)

희망브리지 재난안전연구소

1. 세미나 및 포럼

1. 2022 글로벌 기후재난포럼



- 일시 : 2022. 7. 12. (화), 14:00 ~ 17:30
- 주제 : 기후재난, 함께하는 더 나은 세계로의 디자인
- 장소 : 마포문화비축기지 T2 실내공연장
- 공동주최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MBN
- 내용 : 기후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산불, 폭염, 홍수, 가뭄 등 재난이 장기화 및 대규모화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구호대상으로 주목받지 않았던 새로운 재난이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 이상은 피할 수 있는 재난이 아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기후재난을 재난이 아닌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디자인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2 글로벌 기후재난포럼을 개최하였다.

2. 기후재난포럼(연구회) 발족 및 제1회 포럼 개최

- 일시 : 2022. 10. 4.(화), 16:00 ~ 18:00
- 주제 : GFDRR과 기후재난(발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태성 연구관)
- 장소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홀
- 주최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



- 내용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2022년 7월 12일 개최한 '2022 글로벌 기후재난포럼'의 후속으로 재난안전연구소는 기후재난포럼(연구회)을 발족하였고, 10월 4일 제1회 기후재난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회 포럼에서는 'GFDRR과 기후재난'이라는 주제로 발제(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태성 연구관)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3. 재난기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



- 일시 : 2022년 10월 24일 (월), 15:00 ~ 17: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재익 의원실, 이성만 의원실
- 주관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
- 내용 :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 산불 이후 중장기 재난복지, 지역회복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었고, 2022년 3월 경북 및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에 대하여 모금된 역대 최대 기부금을 이재민에게 편중, 중복, 누락 없이 신속,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행안부, 지자체,

모집기관으로 구성된 민간 기부금협의회의 지속적 논의와 피해조사로 재난기부금 1차, 2차 지원을 이끌어 냈으나 지자체의 기원 규모 확대 요청과 일부 기관의 배분대상 확대 등으로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되었다. 이에 희망브리지 재난안전연구소는 국회의원실과 더불어 재난기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II. 연구과제

1. 반려동물 구호지원을 위한 재해구호세트 개발 연구(진행중)



- 기간 : 2022. 3. 14. ~ 2022. 11. 14.(8개월 간)
- 수행기관 : 희망브리지 재난안전연구소
- 목적 : 재난의 양상이 점점 빈번하게 빈번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다양한 안전정책이 모색되고 있으나, 반려동물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 처음으로 국내·외 반려동물 재해구호방안 현황 파악 및 반려동물용 재해구호세트 샘플제작을 통하여 재난발생 시 반려동물 안전망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용 재해구호세트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 발생한 경북 울진 및 강원 속초 지역의 이재민에게 강아지·고양이 재해구호세트를 제작하여 1차로 배포하였고, 1차 배포 이후 피드백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차 샘플을 제작하였으며 배포하기 위한 준비중이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재해구호방향 논의를 위하여 하반기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재해구호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GLOBAL CLIMATE DISASTER FORUM 2022

2022 글로벌 기후재난포럼



희망브리지 재난안전연구소는
정책개선, 더 나은 구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호활동, 재난복지, 재난약자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조사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손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재난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재난 대비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희망브리지 재난안전연구소는 재난 대비 및 피해 경감을 위한 더 나은 구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부·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중심의 단기적인 이재민 구호에서 개인 및 지역 사회의 연계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장기적 구호와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정책 세미나 개최, 공무원·자원봉사자·시민 대상의 재난교육 실시 등 재난안전 분야의 민간 싱크 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정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
TEL 02-1544-9595
FAX 02-3272-0122
HopeBridge.or.kr

발행일 : 2022.11.07.
발행인 : 송필호
제작·편집 : 희망브리지 재난안전연구소



※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에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